

4.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되, 각각 1어절, 3어절로 쓰시오. [2점]

(가)

무릎을 낮추며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 앞에
 기구(祈求)의 말씀 두노라
 천 개의 손엣 천 개의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
 두 눈 감은 나니
 하나를 숨겨 주소서 하고 매달리누나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쓸 자비라고 큰고.

- 「도천수대비가」(김완진 해독) -

(나)

「도천수대비가」의 1~2행에서는 (㉠)의 자세를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간절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3~4행에서는 (㉡)의 대상을 호명하는데, 천수관음은 관음보살이 세상에 나타날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모습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화자가 총칭(總稱)에 해당하는 관음보살이 아니라 특칭(特稱)에 해당하는 천수관음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것은 천수관음이 (㉡)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8행에서는 바라는 내용을 제시한 후, 9~10행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환기하고 대상을 예찬하면서 마무리한다.

5. 다음은 김 교사가 진행한 수업의 일부이고, (가), (나)는 수업에서 사용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김 교사: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예의를 갖추어 대화할 수 있다.'예요. 다음의 사례를 볼까요?

(가)

상황 팀 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업무를 분담하였다. 신입 사원 A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작성량이 많아서 동료인 B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A: 오늘이 목요일인데, ㉠ 제가 맡은 보고서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B: ① 제가 맡은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줄까요?
 ② 서두르지 않으면 마무리를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나)

상황 역사 탐구 동아리 부원인 C, D, E가 다음 달 방문할 답사 장소를 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C: 다음 번 답사지는 제주도가 좋겠어. 이번 역사 수업 시간에 삼별초 항쟁에 대해 배웠잖아. 그것을 실제로 확인해 보고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D: 난 반대야. 제주도는 일단 너무 멀어. 내가 삼별초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E: 수업 시간에 배운 곳을 직접 방문해 본다니 의미가 있네. 다만 거리가 있으니 학기 중에 다녀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는 관련 유적지인 가까운 강화도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

김 교사: 먼저, (가)를 봅시다. A의 발화에 대해 B의 대답이 ①과 ②에서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대답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 생 1: ①요.

김 교사: 네, 맞아요. 작성할 보고서의 양이 많아서 A가 걱정하고 있으니, B가 ①처럼 말하면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음 (나)를 같이 볼까요? (나)에는 동아리 친구들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어요. C의 제안에 대한 두 친구의 답변 중 어느 쪽이 더 정중하게 느껴지나요?

학 생 2: E요.

김 교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 생 2:

김 교사: 잘 말해 주었어요. 대화 상황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에서 인간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중시할 때는 명료성보다 예의 바름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작성 방법>

- A가 ㉠에서 사용한 체면 유지 전략을 밝히고, 이 전략의 효과를 1가지 쓸 것.
- ㉡에는, E의 발화에서 공손성의 원리가 실현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 효과를 서술할 것.

6. (가)는 학생의 초고이고, (나)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학생의 초고

노키즈존, 이대로 괜찮은가

얼마 전 시험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찾아간 식당에도, 디저트 카페에도 '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A]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한때 어린이였고, 장차 부모가 될 사람이므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설치하면 어린이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보상 책임을 예방할 수 있고 다른 고객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 그럼에도 어린이들만 출입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구매력도, 부당한 대우에 항의할 능력도 없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손쉬운 해결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키즈존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임을 살펴봤습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C] 이들은 이기적인 차별주의자이며 이들의 주장을 절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나)

학생: 선생님, 제가 설득하는 글을 한번 써 봤는데 좀 봐 주시겠어요?

교사: 그래, 어디 보자. 예상 독자는 누구니?

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노키즈존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사: ㉠ 독자를 고려하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구나. 독자에게 위치나 역할을 부여하거나, 독자의 반응이나 질문을 예측하여 미리 답변하거나,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글에서 다루는 정보를 포함 또는 배제하는 등의 전략이 효과적이야.

학생: 그 부분은 작성할 때 반영해 보았어요.

교사: 그래, 잘 구현이 되었구나.

학생: 본론 부분에서는 무엇을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교사: 점점 질문들에 답해 보면서 고쳐 쓸 부분을 확인해 봐. 특히 내용적인 통일성과 ㉡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형식적 연결 관계를 꼭 살펴보렴.

학생: 알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 문단은 어떠세요? 최대한 제 입장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사: 결론에 다시 한 번 주장을 명확히 밝혔구나. 자신의 관점을 일관되게 제시하며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필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사려 깊고 신중한 태도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어. 그런 점에서 결론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여.

학생: 감사합니다.

<작성 방법>

- ㉠을 참고하여 [A]에 나타난 독자 고려 전략이 무엇인지 쓰고, ㉡과 관련하여 [C]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부분을 언급하며 설명할 것.
- [B]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쓰고, 그 이유를 [B]의 내용을 언급하며 설명할 것.

7. (가)는 학생의 사고 구술이고, (나)는 (가)에 대하여 논의한 교사 협의회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학생의 사고 구술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인구 오너스'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른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경제 성장, 물질·인적 자본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노년층의 부양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적은 수의 청장년층이 떠안아야 하므로, 세대 갈등 역시 심각해질 것이다.

우선 저출생의 경우 출생을 제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경우 노후 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연금 및 노인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임금 피크제나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을 역시 이해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인구 오너스”는 무슨 뜻이지? 매력으로도 추론이 안 되어서 모르겠네.

이 문장을 보니, 이 글은 수업 시간에 배운 (㉠) 구조로 되어 있겠구나.

여기는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이 잘 나타나 있어. 두 번째 문단 전체에 밑줄을 그어 두자.

예를 들어 설명하니 이해에 도움이 되네. 여기도 밑줄을 그어 두자.

세 번째 문단까지 읽어 보니 확실히 이 글은 (㉠) 구조가 맞네.

“임금 피크제” 같은 어려운 말이 있으니,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일단 읽은 내용을 정리해야겠다. 밑줄 그은 내용을 차례로 나열해 보면 되겠지.

(나) 교사 협의회 대화

김 교사: 이번 사회 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위해 국어 시간에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한 제재를 읽었어요. ㉡ 학생의 사고 구술 프로토콜을 보니 해당 제재가 어려웠나 봐요.

박 교사: 저도 봤는데요. 밑줄 긋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나 중심 문장에 밑줄을 긋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아요.

김 교사: 게다가 글에 제시된 전문어를 잘 몰라서 글을 다 읽었는데도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

정 교사: 사회는 내용 교과라 전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학습한 개념을 ㉢ 개념망 만들기를 활용해서 서로 연결하여 정리하면 효과적이에요.

박 교사: 그래도 학생이 읽기 과정에서 글의 구조는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글의 내용을 정리할 때 밑줄 그은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아쉬워요. ㉣ 파악한 텍스트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김 교사: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어 수업 시간에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

- ㉠에 들어갈 말을 쓰고, 교수·학습 상황에 ㉡을 활용하고자 할 때의 한계점을 쓸 것.
- ㉢에 해당하는 학습 독서 전략을 밝히고, ㉣과 ㉤이 갖는 공통적인 효과를 설명할 것.

8.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국어의 언중은 어떤 말이 둘 이상의 음성형으로 나타나더라도, 특정 음성형으로부터 다른 음성형들이 나오는 과정을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특정 음성형을 그 말의 (㉦) (으)로 인식할 수 있다.

	X+이	X+을	X+에
(1)	[바치]	[바틀]	[바테]
(2)	[바치]	[바출]	[바체]
(3)	[바시]	[바슬]	[바세]

표준 발음인 (1)에서 국어 언중은 누구나 X를 ‘밭’이라고 인식 하는데, 그것은 [바티] 이외의 다른 음성형인 [바치]이 나오게 하는 음운 규칙이 머릿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로만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2)나 (3)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흔하고, (1), (2), (3)을 혼용하여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만약 X가 ‘밭’이라면 (2)의 [바출], [바체]와 (3)의 [바시], [바슬], [바세]는 ㉦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2), (3)의 X는 각각 (㉧)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어 전체적으로 보면 (1)의 ‘밭’과 함께 (2), (3)의 (㉧)도 (㉦) (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정 개인으로 시야를 좁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 (2), (3) 중 하나로만 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田[field]’을 의미하는 말의 (㉦)이/가 ‘밭, (㉧)’ 중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혼용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밭, (㉧)’ 중 둘 이상의 (㉦)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에 들어갈 말을 쓰고, ㉧에 들어갈 두 개의 어형을 순서대로 쓸 것.
- (2)를 (1)과 대조하여 특정 음운 규칙의 이름, 그 규칙의 적용 환경을 언급하며 ㉦를 설명할 것.

9.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중세 국어 어휘는 사용된 맥락이나 의미 관계를 활용하여 그 뜻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 디호몬 센 거슬 것거 보드랍게 호미오(擣者折剛爲柔)
 <월인석보 17:19>

(2) ㄱ. 힘의 세며 물우물 조차 서르 먹느니
 (隨力強弱호야 遞相呑食호느니) <능엄경언해 4:29>
 ㄴ. 香象(향상)은 ㉠ 못 힘 센 象이니 열네 엄 가진 象이
 히미 雪山(설산)엿 혼 白象(백상)만 못호고
 <월인석보 2:38>

(1)에서 형용사 ‘세다’는 현대 국어의 ‘억세다’에서 확인되는 의미로, ‘剛(강)’의 언해에 쓰였다. (2)에서 ‘세다’는 현대 국어의 ‘힘세다’에서 확인되는 의미로, ‘強(강)’의 언해에 쓰였다. (1)과 (2ㄱ)에서 모두 ㉡ ‘세다’와 반의 관계인 어휘가 확인된다.

이때의 반의 관계가 등급 반의 관계라는 사실은 두 가지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2ㄴ)에서 보듯이 ‘(힘이) 세다’가 (㉢)는 점, 둘째, ‘열네 엄 가진 상의 힘’이 ‘흔 백상(의 힘)’만 못하다는 것이 ‘힘의 세기’를 기준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1)과 (2)의 ‘세다’는 동일한 어형이지만 반의 관계인 어휘가 여럿인 것은 ‘세다’가 (㉣)이기 때문이다.

<작성 방법>

- (1), (2ㄱ)에서 ㉡가 쓰인 어절을 각각 쓸 것.
- ㉠의 ‘못’이 ‘가장’이라는 뜻의 부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말을 쓰고, 중세 국어 ‘세다’의 의미와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쓸 것.

10. 다음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제재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懺悔錄)」 -

(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쪼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보기>

(가)와 (나)는 화자가 자신의 청춘에 대한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성찰로서의 기록하는 행위가 시에서 구체적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한데, (가)에서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라는 시구에서, (나)에서는 ‘(㉡)’(이)라는 시구에서 드러난다.

한편, (가)에서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라는 시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자아 성찰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어 있다면, (나)에서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시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작성 방법>

- (가)에서 ‘얼굴’과 ‘뒷모양’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각각 하나씩 찾아 쓰고,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서술할 것.
- ㉡에 들어갈 시구를 (나)에서 찾아 쓰고, 성찰의 결과를 고려할 때 (나)의 화자가 발견한 진정한 삶의 모습을 서술할 것.

11.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앞의 줄거리] 정신이 혼미한 어머니, 만삭의 아내, 영양실조 걸린 딸, 상이군인 동생 영호, 양공주가 된 동생 영숙과 함께 사는 월남민 출신 송철호는 계리사 월급으로 해방촌의 빈곤한 삶을 이어 간다. 어느 날 철호가 생활 태도에 대해 충고를 하자 이에 영호는 자신의 생각을 토로한다.

(가)

…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가 구해야죠. 이가 쭈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님처럼, 마치 이 쭈시는 것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돈을—치료비를 버는 것이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 쓰는 것은 혹 버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야요. 그렇지만 꼭 써야 할 데 못 쓰는 것이 버는 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과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 만치의 돈을 버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걸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그 대신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 끝의 층에 속하겠지요. 필요한 돈도 미처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깨끗하기는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저 그것뿐이지요. 언제까지나 충치가 쏘아 부은 볼을 싸쥐고 울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 형님! 인생이 저 골목 안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겠지요.

[A]

… (중략) …

“아니야. S 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수는 다시 획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 있는 조수 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다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에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곧 또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아니야. 가.”
 “×경찰입니다. 손님.”
 조수 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B]

“어디로 갑니까?”
 “글쎸 가.”
 “하 참 딱한 아저씨네.”
 “…….”
 “취했나?”
 운전수가 힐끔 조수 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誤發彈)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 오발탄 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진 가진 가야 한다.’

철호는 점점 더 졸려 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 이범선, 「오발탄」 -

<보 기>

전후 소설은 가혹한 현실을 부정하는 인간을 그리거나, 그런 현실 속에 매몰되고 훼손된 인간을 재현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전후 생존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현실적 삶이 부여한 ㉢ 개인적 과제에 억압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폐허의 공간에서 실존적 삶의 문제에 직면한 전후 세대를 상징한다.

<작성 방법>

- ‘영호’가 중시하는 가치가 드러난 단어를 [A]에서 찾아 쓰고, ㉠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해 서술할 것.
- ㉡에 해당하는 내용을 [B]에서 모두 찾아 쓰고, [B]에서 철호가 반복적으로 한 말이 ㉢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술할 것.

12. (가)는 수업 제재이고, (나)는 김 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제재

항주(杭州)에 남아 있던 옥영은 관군이 전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남편은 전쟁터에서 틀림없이 비명횡사하였다고 생각했다. 통곡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으니 필시 죽을 참이었다. 옥영은 물이나 미음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옥영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부디 죽지 마라. [㉠].”

꿈에서 깬 옥영은 몽선에게 꿈 얘기를 했다.

“내가 처음 포로로 잡히던 날 물에 빠져 죽으려 했었던단다. 한데 남원에 있는 만복사의 장육불이 꿈에 나타나 ‘부디 죽지 마라. [㉠].’라고 하지 뭐냐. [㉡] 그로부터 네 해 뒤 네 아버지를 안남(安南)의 바다 위에서 만났었다. 지금 내가 죽으려 하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꾸었던단다. 네 아버지가 혹시 적의 창칼을 피한 것 아닐까? 네 아버지가 살아만 있다면 내 죽어도 사는 게 아니겠니?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느냐?”

몽선은 눈물을 삼켰다.

“최근에 들으니 누르하치가 명군은 다 죽이고 조선 사람들은 모두 벗어나게 해 주었대요. 아버지는 원래 조선인이니 분명 살아나셨을 거예요. 장육불이 꿈에 헛되이 나타났겠어요? 제발 어머니께서는 잠지도 포기하려는 생각일랑 마시고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기다리세요.”

이때 옥영은 순간 마음을 고쳐먹었다.

“누르하치의 소굴은 조선 땅과 겨우 네댓새 거리이니 네 아버지가 살아있대도 형세상 필시 조선으로 도망쳤을 게다. 어떻게 만 리 먼 길을 건너 처자식을 찾아오겠니? 아무래도 조선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죽었다고 해도 직접 창성(昌城) 언저리에 가서 떠도는 혼이라도 불러 선영(先塋) 곁에 장례를 치러 주어야겠구나. 저 황량한 사막 밖에서 영원히 주리는 신세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책임인가 싶다. 하물며 월(越) 땅의 새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틀고 호(胡) 땅의 말은 북쪽을 향해 우는 법,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하니 더더욱 고향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구나. 홀로 되신 시아버님과 네 외할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을 남원이

[A] 왜적에게 함락하던 날 잃었잖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어서 아는 게 없다만 전에 일본 상인을 통해 듣자니, 포로가 된 조선 사람을 계속 보내 주었다고 하더구나. 이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어찌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오지 않았겠니? 네 아범과 할아버지가 모두 이역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다 라도 조상의 선영은 누군가 다시 지켜야 하지 않겠니? 또 안팎의 친척들이 난리 통에 다 돌아가시기야 했겠니? 정말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고. 너는 배를 알아보고 식량을 마련해 두거라! 여기서 조선까지는 뱃길로 근 이삼천 리는 될 게다. 천지신명이 도와주어 순풍을 만나면 열흘에서 달포 안에는 조선 해안에 당도하겠지. 내 계획은 결정됐구나.”

…(중략)…

[B] 아!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시아버지와 장모, 그리고 형제가 네 나라로 헤어져 서로를 애타게 그린 지 삼십여 년이었다. 적의 땅에서 삶을 도모하고 사지를 드나들다가 끝내 단란하게 다 모였으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필시 옥황상제와 후토(后土)의 신이 이들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리라. 필부필부(匹夫匹婦)도 정성이 있으면 하늘이 이를 어기지 못하는 법이다. 정성은 가려 없어지지 않음 이 이와 같다.

- 조위한, 「최척전」 -

(나) 수업 준비 메모

• 학습 목표: 「최척전」에 나타난 인물, 사건, 배경을 살펴 작품이 지닌 문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 학습 내용: 「최척전」의 문학적 특성

인물	○ 부부애와 가족애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家長) 최척 ○ 최척 집안을 지키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여성 옥영
사건	○ 최척과 옥영의 결연(結緣) 서사 ○ 최척 일가족이 겪은 (㉡)의 반복적 서사
배경	○ 16세기 말~17세기 초 임진왜란, 정유재란, 심하(深河) 전투 등 ○ 조선, 중국, 일본, 안남(베트남) 등 확대된 서사 공간

<작성 방법>

- [㉡]을 고려해 [㉠]에 들어갈 말을 쓰고, ‘장육불’의 서사적 역할에 대해 서술할 것.
- ‘옥영’의 유교적 가치관이 잘 드러난 구절을 [A]에서 찾아 쓰고, [B]를 참고해 [㉡]에 들어갈 내용을 ‘…와/과 …’의 형식으로 쓸 것.

<수고하셨습니다.>